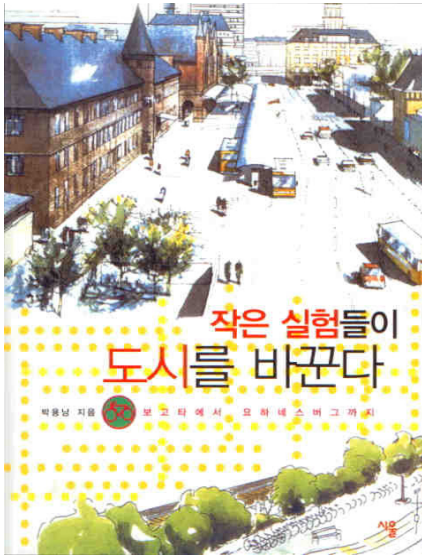


작은 실험들이 도시를 바꾼다



- 지 은 이 : 박용남
- 발행연도 : 2006
- 출 판 사 : 도서출판 시울

「꿈의 도시 꾸리찌바」란 베스트셀러의 저자인 박용남이 속편격인 「작은 실험들이 도시를 바꾼다」를 내놓았다. 앞의 책이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한 도시를 해부하였다면, 뒤의 책은 망원경을 눈에 대고 남미의 보고타에서 유럽의 블로냐와 라벤나를 거쳐 아프리카의 요하네스버그까지 전세계 도시를 쭉 훑어보는 모양새다. 이 책은, 녹색 지구를 지

키는 안내자 역할과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도시에서 직접 대안을 찾을 때 참고할 지침서 역할을 하겠다고 나선다.

이 책이 다루는 환경도시, 대중교통도시, 자연과 문화유산을 지키는 도시, 지역통화를 실험하는 도시는 모두 '느린 도시'(Slow City)의 다른 표현이다. 자동차가 중심이고 모든 사고의 잣대가 되는 도시를 꺼리는 저자는 속도만을 중시하는 도시정책을 멀리한다. 이 책은 6차선 도로를 2차선으로 줄이고, 자동차만 다니는 차도를 빼앗아 대중교통수단인 노면전차를 다니게 하는 외국도시사례들을 보여준다. 자동차를 도시의 암세포로 규정하고, 자동차에 중독된 사회를 논하면서 자동차는 아편이라고 말하며, 자동차라는 족쇄가 채운 굴레에서 자신을 해방하라고 외친다. 저자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구현해 가는 성공의 열쇠는 '교통'에 달렸다."고 믿는다. 토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을 통합시켜 고밀도시로 만들고, 도시내 자동차의 통행량과 속도를 줄이고, 에너지 사용량을 감소시키는 방안이 '교통'에 농축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이 책은 거꾸로 생각하기를 끊임없이 요구한다. 차량 흐름이 막히면 길을 넓히고 도로를 신설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우리에게 그 반대가 답이라고 말한다. 갯벌을 매립하는 대신에 연안 육지를 바다로

개조하는 라벤나 방식을 소개하고, 도로를 폐쇄하거나 가로를 좁게 해서 교통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보여주는 데에서 이 책의 역발상 주장은 설득력을 더한다.

동시대인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역발상에는 용기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를 높은 삶의 질의 도시로, 지속가능한 도시로 탈바꿈시킨 성과는 엔리케 페나로사라는, 탁월한 비전과 열망을 지닌 지도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2000년 10월 주민투표에서 “2015년 1월 1일부터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6시 - 9시, 오후 4시 30분 - 7시 30분에 걸친 6시간의 첨두시간에 택시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한다.”는 혁명적인 계획안이 승인되었던 것도 역발상의 결과였다. 가장 자동차가 필요한 시간대에 자동차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동차에 의존하지 않는, 더 나은 도시생활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마치 아랍에미리트의 지도자 셰이크 모하메드가 두바이 앞 바다에 야자수 모양의 인공섬을 조성하고, 사막에 실내스키장과 골프장을 만든다는 역발상으로 창의와 열정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다.

“우리가 꿈꾸고 염원하는 세상이 100년, 또는 그 이상이 걸려 달성된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꿈이란 꾸는 자만이 성취할 수 있고, 언젠가 그 꿈은 꿈을 꾸 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게 마련이다.”라는 문장에서 느낌을 추구하는 저자의 꿈과 열정이 드러난다.

“우리는 물론 우리의 후손, 그 후손의 후손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견고한 건축물을 설계하고 짓는 것은 모두 우리의 이 자그마한 손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정말이지 지금은 우리가 사는 도시에서 코페르니쿠스와 같은 인식의 대전환과 혁명이 필요한 시대이다.”란 저자의 글에서 역발상에의 강력한 의지를 읽는다.

이창우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목 차 소 개

제1부 환경도시와 대중교통도시 탐방

차없는 도시를 향한 실험, 보고타
재미와 장난이 만든 생태도시, 꾸리찌바
손가락 모양의 녹색도시, 코펜하겐
초록빛 꿈과 상상력이 만든 환경도시
작은 실험들이 유럽을 바꾼다
지역사회 발전의 대안적 방식

제2부 작은 행성을 위한 교통모델 찾기

도시 교통 체계와 현대인의 삶
교통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자동차로부터 해방되는 길

지금은 자동차를 길들일 때
간선급행버스가 만드는 지속가능도시
버스 준공영제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
자동차 공동이용을 시작하자

제3부 자연과 문화유산 지킴이, 내셔널트러스트

영국의 내셔널트러스트 운동
자연과 문화유산을 사들인다

제4부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기

지역과 세계를 구원하는 새로운 실험, 지역통화운동
요하네스버그 지구정상회의의 참관기